

“배알도에서 특별한 여름여행 어때요”

광양시, ‘섬의 날’ 생태·역사의 보고 추천 배알섬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자유 만끽

광양시가 제3회 ‘섬의 날’을 맞아 섬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배알도 섬 정원에서 특별한 여름을 보낼 것을 추천했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8년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무한(8=∞)가능성을 상징하는 8월 8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배알도는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떠 있는 섬으로 대동여지도, 여지도 등에 사도(蛇島)로 표기돼 뱀섬으로 불리다 망덕산을 향해 배알하는 형국에서 그 이름을 얻었다.

배알이라는 낱말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잊사람을 만나 본다’는 의미 외에도 성미나 자존심 또는 자기만의 생각이 자리 잡은 가상의 처소를 비유적으로 이른다.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배알도는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가상의 처소’로 자신과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철학적 공간이었던 셈이다.

멀리서 바라만 볼 수 있었던 배알도는 2개 해상보도교로 망덕포구와 수변공원과 연결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닿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됐다.

푸른 바다 위를 건너는 별 해는 다리와 해맞이다리는 가상의 처소인 배알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낭만 해상로다.

또한 0.8ha, 25m 규모의 아담한 배알도는 아름다운 꽃이 사계절 피어나고 다채로운 버스킹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배알도 섬 정원’으로 재탄생했다.

초록 잔디가 웅덩이처럼 펼쳐진 섬 마당은 아기가자기한 꽃밭과 배알도라는 빨간색 명칭 포토존이 조화를 이루며 감성을 자극한다.

오랜 시간을 굶은 고목 아래 놓인 벤치에 앉으면 섬 마당이 펼쳐지는 여백의 미와 해상보도교의 우려한 곡선미가 편안함을 선사한다.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떨어지는 아름다운 석양은 긴 여운을 남기며 한동안 ‘놀(노을)멍’에 빠지게 한다.

빽빽한 시간의 틈바구니를 빠져나온 현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안식과 위로를 주는 풍경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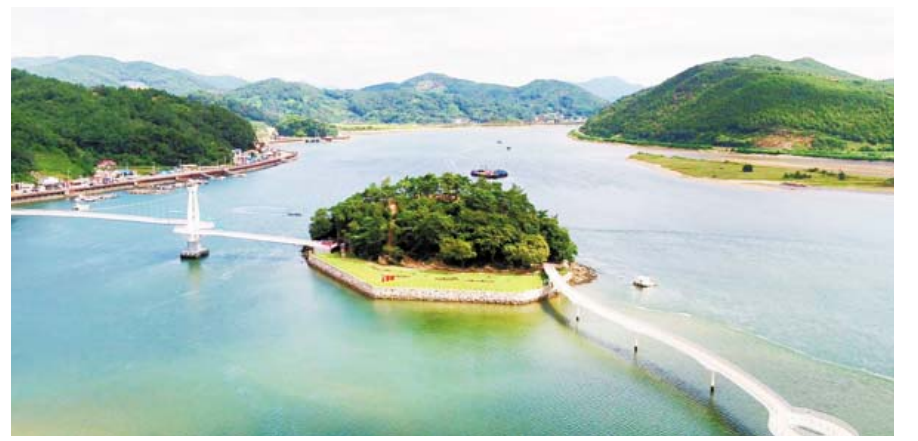
공간은 저마다 내면을 지배하는 기운을 지니고 있고 여행은 그곳에서 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을 찾아 나서는 ‘자발적 유배’다.

섬이 가진 지형과 기운을 그대로 살린 돌레길을 따라 걷노라면 감춰져 있던 섬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기쁨은 배가 된다.

배알도 정상의 해운정은 김구 선생, 태종 사라호 등 오랜 시간의 역사를 간직한 채 묵묵히 서 있다.

해운정에 오르면 정자를 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은 새로운 프레임으로 떠오르며 질푸른 바다와 고담한 소나무를 운치 있게 담아낸다.

배알도 섬 정원은 자연의 생태와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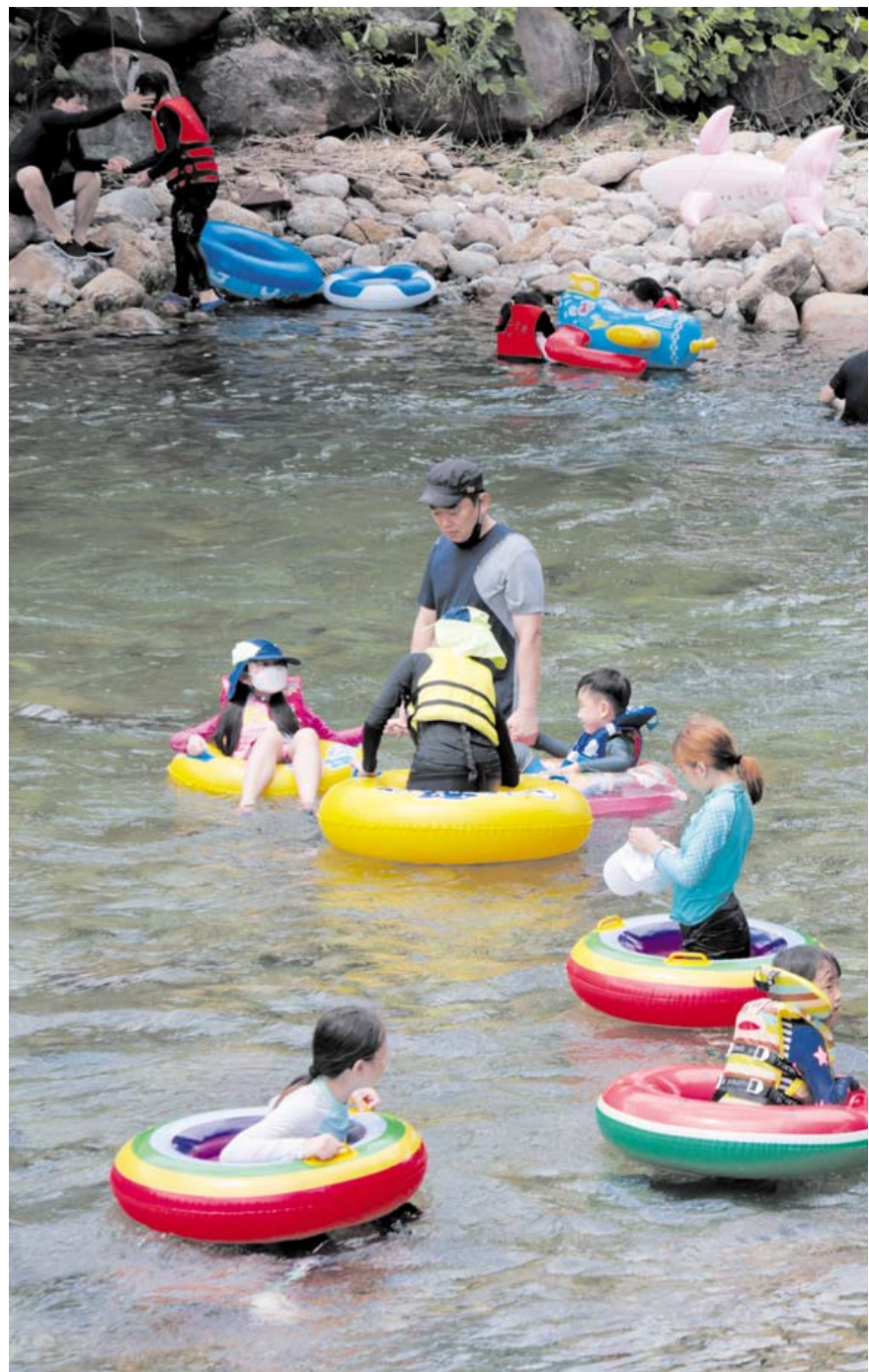


광양시가 제3회 ‘섬의 날’을 맞아 섬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배알도 섬 정원에서 특별한 여름을 보낼 것을 추천했다. 사진은 배알도 정경. (광양시 제공)

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바다에 둘러싸인 섬의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만끽하게 해준다.

바다가 섬진강을 기다렸던 곳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된 배알도 섬 정원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보도교로 맞을 내리고 섬의 가치를 지켜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배알도 섬 정원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휴식과 힐링을 선사하는 생명 공간으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시간과 공간을 찾아주는 곳”이라며 “섬의 날을 맞아 생태·역사의 보고인 배알도에서 특별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여름여행을 계획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양홍렬기자



피아골 계곡물에 풍덩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을 찾은 관광객들이 계곡물에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道전지훈련 실적평가 ‘장려상’

2020년 우수상·2021년 장려상 등 3년 연속 수상

구례군이 2022년 전남도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7월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청 관광문화체육국 소회의실에서 2022년 시즌 동·하계 전지훈련 시·군 별 유치 실적 평가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구례군은 실적 평가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전지훈련팀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전지훈련 유치 실적 분야에서 2020년 우수상, 2021년 장려상에서 이어 3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 구례군을 찾은 전지훈련팀은 17개 팀, 5천여명에 이른다. 하계 전지훈련이 지속되는 8월 구례군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모집

구례군은 올해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 근로 능력을 재생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구례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재산 3억원 이하인 자이다. 취업 취약계층은 우선 선발될 수 있고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합산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구례=이성구기자

주순선 부시장, 현안 국비 확보 ‘쟁걸음’

광양항-울촌산단 도로 등 요청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이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임기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면담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 주 부시장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한 2차 예산 심의가 지난달 말 마무리됨에 따라 8월 중순까

지 이어지는 3·4차 예산 심의에 맞춰 사업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3천118억원)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6천915억원) ▲광양항 탄만배후단지 확대 지원(992억원) 등이다.

또한 수질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에 ▲봉강, 육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진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광양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건(152억원) 등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순선 부시장은 “한 발짝 앞서 지역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26-27일 ‘구례자연드림 락페스티벌’

‘2022 구례자연드림락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친환경 이미지를 담아 2015년부터 진행해 온 ‘구례자연드림락페스티벌’은

‘Kiss the earth’라는 슬로건으로 지구와 상생하는 친환경적 가치를 지닌 구례자연드림과 국내 최고 수준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시 구례가 결합된 환경페스티벌로 2022년 재탄생했다.

3년 만에 현장 공연이 부활한 만큼 기존 하루 페스티벌에서 이틀간 진행하며 환경캠페인도 병행한다. 또한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첫날인 26일에는 소찬휘, 로맨틱펀치, 406호 프로젝트가, 둘째 날 27일에는 육남매, 크라이넛, 타카피, 디펄스, 노브레

인, 정종일(바크하우스), 윤성(아프리카)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 국카스텐이 ‘2022 구례자연드림락페스티벌’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지정 좌석이 없는 야외 공연으로 온라인(티켓링크, 네이버)과 오프라인(구례자연드림파크 매표)으로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다. /구례=이성구기자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정보 커플유

초혼·재혼·전문직

커플매니저 프리랜서(알바) 모집!

모집부문	비고
프리랜서 (알바) 남·여○명	교통비 + 수당지급 오전 미팅후 퇴근시간 자유 상담 후 결정

• 위 치 : 상무 세정아울렛 부근 (치평동 1314-4)

062)381-6669